|  |  |
| --- | --- |
| **1** | 가난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면 가난도 즐거울 수 있다. |
| **2** | 턱 밑에 붙어 살아가고 있느냐, 이놈아? |
| **3** | 때린 사람은 다리 못 뻗고 자도,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잔다. |
| **4** | 학문과 덕이 높은 사람은 말에는 더디고자 하고, 행동함에는 빠르고자 한다. |
| **5** | 증오는 그 마음을 품는 자에게 다시 돌아간다. 말뜻을 알겠냐? |
| **6** | 어리석은 자의 분명한 증거는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여 흥분하는 것이다. |
| **7** | 세상은 아지랑이와 같고, 세상은 물거품과 같다. 놀고들 있네 ㅋㅋㅋ |
| **8** | 저것들을 보아하니, 전당 잡은 촛대 같고, 꾸어 온 보릿자루 같다. |
| **9** | 사람에 버릴 사람 없고, 물건에 버릴 물건 없다는데 니는 왜그렇노? |
| **10** | 과제물 다했나? 텀 때문에 사람 돌아뿌겠다. 미치겠네. |
| **11** | 독서가 정신에 대함은 준비 운동이 육체에 대함과 마찬가지라네? |
| **12** | 가장 현명한 사람이란 자기가 현명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 사람이라는 말이 니는 믿겨지나? |
| **13** | 기사님, 지난주에 맡긴 폰 수리 다 되었습니까? 언제 찾으러 가면 됩니까? |
| **14** | 날 버리고 가더니 니 요새 잘 사나? |
| **15** | 나는 눈도 작고 키도 작은데 얼굴은 왜 크지?????? |
| **16** | 내 피 땀 눈물 내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가 내 피 땀 눈물 내 피 땀 눈물도 내 몸 마음 |
| **17** | 기억 안 난다니까 다시 말할게요. 저 진짜 누나 좋아해요. 알아요!  거절할 거 알아요. |
| **18** | 클럽가지마. 남자랑 연락하지 말고 놀지도 마. 술도 먹지마.  친구들 가려 만나. 걔네 나쁘단 건 아냐. |
| **19** | 노력해도 너 마음이 그런걸 알았는데 어느남자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어.  하지만 난 아직 |
| **20** | 연락하지마 생각할수록 빡치네 내가 그때 그렇게 통화한번만 하자고 했는데 |
| **21** | 택배기사님 제가 오늘 집에 없기 때문에 114동 무인택배함에 대신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~~~^^ |
| **22** | Messi is the best in the world. |
| **23** | HJ님, 이런 댓글 적을 여유 있으면 야밤에 어디가서 닭 사다  직접 튀겨드시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? ^^ |
| **24** | 카톡차단하고 끝까지 전화안받더니 잊을만하니까  뜬금없이 연락하고 지랄이네 |
| **25** | Compiler와 Algorithm design 교과목 강의 마감된 것 같은데,  수강신청 성공했니? |
| **26** | 박차장님 폰 번호가 010-8539-1574 맞니????? |
| **27** | 이 카톡은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일년에 한 바퀴 돌면서 받는 사람에게 행운을 주었고 |
| **28** | 우리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 이 세계의  파괴를 막기 위해 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|
| **29** | 사랑 받지 못하는 것은 슬프지만,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더욱 슬프다. |
| **30** |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무엇이냐는 말이냐. |